

사회

“인생 황혼기에 직접 쓴 자서전 삶은 축복의 연속인걸 느끼죠”

광주 서구문화센터 매주 목요일 ‘자서전 학교’ 복직

“보잘 것 없던 내 인생도 돌아보면 행복하고 축복받았던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1시40분 광주 서구문화센터. 하얗게 센 머리를 정성스레 다듬은 할머니들과 나이 지긋한 노인사들의 발걸음이 1층 강의실로 이어졌다. 매주 목요일 오후 ‘자서전 학교’가 열리는 이곳에서는 노인들의 즐거운 수다가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시계 바늘이 2시를 가리키자 강사 이계양(53)씨가 인생 황혼기에 들어

선 수강생을 상대로 수업을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저마다 노란 표지가 입혀진 98쪽짜리 교재가 펼쳐졌다.

자서전 학교는 광주서구문화센터 주최하고 광주서구문화센터 주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일, 부모로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등 저마다 행복했던 순간과 고비들을 떠올리며 기록했다.

“자식들을 돌보고 살피하라 내 인생에서 ‘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 버지 할머니가 되어 ▲노년을 보내며 등으로 인생을 나누는 뒤에 해당

하는 설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어르신들은 강사 이계양씨의 도움을 받아 유년시절 가장 기뻐던 순간, 어린 시절 나의 꿈, 결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기억, 신혼여행 순간,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일, 부모로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등 저마다 행복했던 순간과 고비들을 떠올리며 기록했다.

“자식들을 돌보고 살피하라 내 인생에서 ‘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 버지 할머니가 되어 ▲노년을 보내며 등으로 인생을 나누는 뒤에 해당

전엔 내 인생이 보잘 것 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했지만, 글을 쓰면서 되돌아 본 내 인생은 나를 의미가 있었다. 또 누구보다 행복한 순간도 많았다”고 회고했다.

수업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쉬는 시간없이 계속됐다. 졸거나 자리를 비운 수강생은 없었다. 축 처진 안경테와 백발,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는 세월의 흐름을 감출 수 없었으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기록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엔 뿌듯한 미소가 넘쳐 나왔다.

부부가 함께 자서전 학교에 등록한 최국남(65)·박순이(여·60)씨는 자녀에게 남길 ‘잡안’을 기록하고 있었다. 부부는 둘 다 문학박사 학위를



지난 22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내 인생의 자서전학교’에서 어르신들이 자서전 쓰기 강의를 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취득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최국남 할아버지는 “각자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자서전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서로 ‘터치’하지 않고 있다”며 “자서전을 쓰면서 또 한번 우리 부부의 삶이 축복받았던 걸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7년째 암 투병 중이거든요. 이 양반(남편)과 함께 우리 인생을

글로 정리하려고 해요. 어때요. 우리 행복해 보이죠?”라는 박순이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절망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 1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자서전 쓰기에 들어간 20여명의 어르신들은 15주 간의 강의를 끝나는 12월 17일 그동안 적어왔던 자서전을 책으로 펴내고 출판 기념식을 갖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원침 (7935) 김종두



여수체육센터 수영장 건설 공사 현장 발화

23일 새벽 2시50분께 여수시 시전동 여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설 공사장에서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사무실과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2동, 목재 등을 태워 92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4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공사장 내 컨테이너, 야외 합판적치장, 목재 폐기물장 등 3곳이 동시에 불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다음달 21일까지 통제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가 한 달 동안 통제된다.

남구는 제석산 구름다리 도색작업과 야간경관 조성공사에 따라 다음달 21일까지 구름다리 진입이 통제된다고 22일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페인트를 벗겨내고 안전판 등을 설치하고 있다”며 “다음달 21일이면 도색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미약 ‘물뽕’ 구매시도 10대 등 5명 입건

광양경찰청은 23일 인터넷을 통해 신종 마약인 GHB(속칭 ‘물뽕’)를 구입하려 한 A(19)씨 등 5명을 마약류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GHB 판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등을 보고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구매의사를 밝힌 후 통장에 각각 15만~25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GHB 1~5병을 구입하려 한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정수기자 choung47@

“도토리묵 혼자 먹었다” 따지자 폭행

○...“도토리묵을 혼자 먹었다”며 잔소리를 한 부인에게 흥기를 던져 다치게 한 ‘철부지’ 남편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청은 23일 A(5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서구 내방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인 B(47)씨의 옆구리에 가위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웃집에서 준 도토리묵을 먹고 있던 중 병원을 치료 받고 퇴원한 부인 B “도토리묵을 혼자 먹었다”며 짜증을 내자 손이 화가 치밀어 옆에 있던 가위를 던져 던졌다는 것. /*이종형 기자 golee@

잡은 독극물 사고 대책 급하다

전남 2년새 13명 사상... 특별관리 필요

김태원의원 국감

최근 전남지역에서 농약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에 의한 사상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잔여농약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독극물로 인한 사상 사건이 5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7

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강진에서 농약을 이용해 내연너를 사탕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순천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발생해 최모(여·59)씨가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또 지난 8월에는 순천 ‘막걸리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흥에서 이웃 주민에게 불만을 품은 70대 할머니가 생수병에 농약을 넣어 주민 3명에게 사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전남에서 독극물로 인한 사건이 잇따른 것은 농촌지역이 많은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상 농약 등 독극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태원 의원은 “현재 농약의 판매점에서 구매자만 기재할 뿐 남은 농약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독극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과정 전반에 걸친 특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우유 투입구 통해 문열어 아파트 2억원대 상습 절도

광주서부경찰, 3명 구속

아파트 우유투입구에 접이식 나무막대기를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간 금품을 탄 역대 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청은 23일 도심 아파트 빈집 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39·경남 진주시)씨 등 3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월 5일 오후 3시에 광주 서구 금호동 M아파트 조모(여·51)씨의 집에 침입해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광주와 여수 등 전

국을 돌며 30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 전 잠물처분·망보기 등 역할분담을 한 이들은 길이 1.2m의 접이식 나무막대기에 반사경을 설치한 장비를 직접 만든 뒤 이를 우유투입구에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탐문수사를 하던 중 범인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 차적 조회로 이들을 붙잡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아파트 방범창 뜯고 침입 상습 금품 절도 20대 영장

광주경찰청은 23일 도구로 저층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탄 이모(20)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후 8시 10분께 광산구 우산동에 사는 K(여·30)씨의 집에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6회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전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저층 아파트의 방범창을 도구로 뜯어내 침입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측

▲김명순씨 장남 양재영군 신홍수(광동중유소·백암중유소 대표)·서덕례씨 장녀 신희양=24일(토) 낮 12시30분 웨딩의전당 플러머스 2층(노블레스홀)

▲정근채·임화주씨 차남 형준(인천세무서)군 김동현(전 전남일보 사인부국장)씨 장녀 도희(신창초 교사)양=24일(토) 오후 1시 메리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김승완·임종심(물천어집)씨 장남 동희군 민경남씨 장녀 수정 양=24일(토) 오후 1시 웨딩의전당 금호30층(아시아나홀)

▲유병호(남순천의원 원장)·이순복씨 아들 재철(전공수련의)군 김용하(광주고 교장)·노명란씨 딸 미나(약사)양=24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양태승·박관미씨 장남 정일(전 광주일보 업무국 사원)군 심중순·이미례씨 오너 승희양=25일(일) 오후 1시30분 삼무지구 예술의전당 2층(로즈마리홀)

▲박현희·김정숙씨 장남 주영군 이필용·조부덕씨 차녀 신희양=25일(일) 오후 1시30분 웨딩의전당 금호30층(아시아나홀)

▲우상순씨 장남 지훈군 오대홍씨 장녀 미희양=25일(일) 오후 1시50분 갤러리아웨딩컨벤션 2층(크리스탈홀)

▲최영욱·선후자씨 막내 상주(광주롯데백화점 홍보팀장)군 박래선·김안숙씨 장녀 진영양=25일(일) 오전 11시20분 조선컨벤션 1층(춘추관)

▲곽용연·박순철씨 장남 상호군 최현주(광주시 환경녹지국장)·김숙희씨 장녀 헤미양=11월1일

(일) 오후 3시30분 서울범원종합청사예식장, 피로연 23일(금) 오후 6시 에별투션웨딩컨벤션 2층(아일랜드홀)

무음

▲남궁경씨 별세 덕만·덕천·성현·덕순씨 부친상=발인 25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장매실씨 별세 전영일·영호·영자·영애씨 모친상=발인 25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김재동씨 별세 호민·현주·호성·성물·순희·희숙씨 부친상=발인 25일(일)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삼조씨 별세 광삼·광덕·복식·복자·영순씨 부친상=발인 24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23일 오후 시민법인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광주장애인인권센터가 동구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앞에서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 하루 550대

올 과태료 67억 달해

광주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이 하루 55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난 8월 말까지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은 총 13만2천342대로 하루

평균 551대에 달했다. 이 기간 위반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67억6천만 원으로 이중 38억여원이 납부돼 절반을 약간 넘는 57%의 징수율을 보였다.

현재 대남로와 임방울대로 등 9개 노선 49.9km가 시내버스 전용차로 대상이다. 대남로 등 8개 노선은 오전

7~9시, 오후 5시30분~7시30분에 전용차로가 적용되고 있으며, 임방울대로는 24시간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압류통지서 발송 및 압류 촉탁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16시 46분 해질 17시 47분 달돋이 22시 22분 달짐 22시 15분

안개 주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곳에 따라 안개 끼는 곳도 있겠다.

구분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0/25℃
목포	맑음	12/23℃
여수	맑음	14/21℃
완도	맑음	11/22℃
구례	맑음	5/24℃
해남	맑음	7/23℃
장흥	맑음	7/23℃
고흥	맑음	6/23℃
순천	맑음	9/24℃
영광	맑음	9/23℃
진도	맑음	8/23℃
전주	맑음	9/24℃
남원	맑음	3/23℃
옥산도	맑음	15/21℃

◇주간 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5	10/24	11/24	11/23	11/22	11/19

“유명산 단풍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호남지방 유명산의 단풍정보를 광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gwangju.kma.go.kr)를 통해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풍정보로 연결되는 팝업창에서 호남지역 유명산의 단풍 현황과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통한 기상정보를 볼 수 있다. 현재 덕유산 단풍이 65% 정도가 물든 것을 비롯해 지리산 55%, 내장산 25%, 무등산 20%가 단풍으로 덮였다.

덕유산은 이번 주, 지리산은 다음주, 무등산과 내장산은 다음 달 초가 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의 단풍정보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공한다. /*김형호기자 khh@